

新羅 同紋異形 막새기와의 小考

- 慶州地域에서 채집된 3종 8점을 중심으로 -

朴 洪 國*

목 차

- I. 머리말
- II. 同紋異形 막새 資料 概觀
- III. 考 察
- IV. 맺음말

< 요 약 >

우리나라의 古瓦중에서 특히 막새기와는 제작당시에 유행 또는 선호되었던 문양이 施紋되어 있어 일찍부터 기와연구의 지름길로 인식되면서 주된 고찰 대상이 되어 왔다. 이 중에서 統一新羅時代의 암. 수막새들은 그 문양과 종류의 다양함에서 다른 나라의 것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本稿에서는 막새문양면에 시문된 무늬는 같은데, 周緣部 높이·接合技法·上下周緣의 有無 등에서 차이를 드러낸 3종 8점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1. 고찰한 3종류의 기와들은 세부형태의 큰 차이에도 불구하고 종류별로 같은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본다.
2. 기와제작기법 그 자체가 편년의 기준이 될 수 있는 時間的 範圍는 어떤 기법이 처음 導入·發生되었을 무렵에 그 기법에 의하여 제작되었던 유물에만 適用可能하다고 생각된다.
3. 이러한 고찰 결과에 따라 古瓦編年에는 그것이 출토된 層位, 共伴遺物(특히 토기) 비교 등 외에도 다양한 방법에 의한 접근이 필요함을 再強調하고자 한다.

* 위덕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실장

I. 머리말

우리나라의 역사시대 유적 중에서 주로 기와 가마터와 宮殿, 寺院, 官衙, 城郭 등의 建物址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는 기와에 대하여 활발하고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나라 기와의 막새문양, 제작기법 등에 대한 연구가 비록 활발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런대로 진행¹⁾은 되어 왔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기와연구결과가 집대성되어 출토유적지에 대한 「歷史復原」에 정확한 자료로 활용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듯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도 복합적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기와에 대한 三國史記 등 문헌기록은 빈약하고, 연구자와 연구성과도 태부족한 상태에 있는 데에서 기인한다. 여기에다 기와가 가지고있는 원천적인 약점, 즉 기와가 나오는 유적지의 대부분이 창건·중수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전면발굴조사가 이루어져도 製作先後關係 정도는 추측할 수 있지만, 共伴遺物에 의지하지 않으면 그 정확한 편년이 어렵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떤 寺址에서 「폐와더미」를 찾아내었을 경우에도 그 안에 있는 기와의 「廢棄同時性」은 인정될 수 있겠지만, 「製作同時性²⁾」은 담보하고 있지 않다.

그 數에 있어 尙大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古瓦들이 역사고고학의 주요 자료, 즉 역사복원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자면 무엇보다도 정확한 편년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라기와의 경우에는 위에서 열거한 이유 외에도 그 수가 너무 많아 각 개인 연구

1)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도 결국 신라기와의이고, 이에 대한 국내의 중요한 연구업적들을 발표연도순으로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 ① 金東賢 外, 1976. 『新羅의 기와』 건축과 문양(上) 韓國建築史大系 V(동산문화사)
- ② 윤근일, 1977. 「통일신라시대 와당의 제작기법에 관한 연구」(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③ 김성구, 1981. 「안압지출토 고석와당의 고찰」, 『미술자료』 29(國立中央博物館)
- ④ 김성구, 1983. 「다경와요지출토 신라와전 소고」, 『미술자료』 33(國立中央博物館)
- ⑤ 김성구, 1984. 「통일신라시대의 와전연구」, 『고고미술』 162·163호(한국미술사학회)
- ⑥ 신창수, 1987. 「삼국시대 신라기와의 연구」-황룡사지 출토 신라기와를 중심으로-, 『문화재』 20(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 ⑦ 박홍국, 1988. 「월성군 내남면 망성리와요지와 출토와전에 대한 고찰」, 『영남고고학』 5(영남고고학회)
- ⑧ 김유식, 1996. 「신라치미에 대한 일연구」-경주지역 출토품을 중심으로-, 『경주사학』 15(경주사학회)
- ⑨ 조성윤, 2000. 「경주출토 신라 평기와의 편년 시안」(경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본고에서 표기하는 제작동시성은 완전히 같은 날 成形되어 동시에 가마에서 播造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同范 또는 類似范의 수명 즉 아무리 길어도 10년 이내의 기간을 念頭에 두고 기술하는 것임을 밝혀둔다.

자들이 연구에 착수하기조차 벅찬 상대로 인식될 정도이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모르고 지내온 부분을 밝혀낼 수 있는 자료나 연구방법이 있을때는 이를 구사하여 하나하나 접근해 가는 수밖에 없다. 필자도 근래 同范瓦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同紋瓦임에는 틀림없는 막새기와들이 周緣部나 接合技法에 있어 매우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고 적지 않은 당황함과 놀라움을 동시에 경험한 바 있다. 그리고 이것이 필자 혼자만의 경험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에 대한 간략한 小稿나마 작성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본고는 어떤 뚜렷한 학설상의 법칙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數点의 관련자료를 제시·고찰함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같은 작은 시도들이 집성되면 그것도 일정수준의 학설을 형성하게 될 것이고, 또 나름대로 類似研究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I. 同紋異形 막새 資料 概觀

본고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자료는 單瓣蓮花紋 수막새 3점, 唐草紋 암막새 2점, 二重唐草紋 암막새 2점등이다. 이 기와들은 紋樣面에 시문된 무늬로 보아 각각 同紋瓦로 판단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수막새의 경우 周緣部の 높이, 당초문 암막새는 접합방법과 아래턱의 두께, 二重唐草紋 암막새는 上下周緣部の 유무에서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물론 그 많은 신라의 막새기와 중에는 이와 같은 경우에 속하는 것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비록 片面이지만 필자가 직접 대할 수 있는 자료 3종류만을 例示하고자 한다.

1. 단판연화문 수막새(3점)

1) 단판연화문 수막새 A (圖版 1. - ①, ②, ③)

이 수막새는 慶州 南山 長倉谷 瓦窯址에서 채집³⁾된 것이다. 8엽연화문 수막새로 단면의 색조는 겉면이 암자색, 속심은 회청색이다. 자방과 연꽃잎, 사이일부분이 돌출되어 있으며 T字 모양이고, 연판사이의 細區劃線이 子房까지 연결되어 있다. 자방안에는 1+5개의 蓮子가 있으며, 중앙부분은 주변보다 높게 표현되어 있다. 접합방법은 주연부를 瓦刀로 정면하고 수키와

3) 박홍국 외, 2001. 『慶州 南山 長倉谷 新羅瓦窯址 地表調査 報告書』(위덕대학교 박물관) p.21. 그리고 이하에서 제시할 당초문 암막새 C (p.35), 二重唐草紋 암막새 A (p.29), 이중당초문 암막새 B (p.30)도 다같이 경주 남산 장창곡 신라와요지에서 채집되었기 때문에 個別脚註는 생략한다.

에 부착한 후 補土로 접합부를 보강한 것으로, 그 뒷면은 물손질로 정면되어 있다. 이 수막새의 주연부는 그 높이가 0.5~1.2cm로 높낮이가 고르지 않고, 주연을 이루는 수키와부의 안쪽에 일부 補土되어 있다.

2) 단판연화문 수막새 B (圖版 2 - ①, ②, ③)

慶州工業高等學校 부지는 新羅 眞興王 5년(A.D.544)에 창건하였다고 기록⁴⁾된 興輪寺의 遺址⁵⁾로 비정되고 있다. 이 수막새는 경주공업고등학교의 서남쪽 담장 안에서 채집된 것이다. 원래는 8엽연화문이 시문되었던 것이지만 지금은 1과 ½엽만 남아있는 小片이다. 남아있는 연꽃무늬는 꽃잎 끝부분에 돌기가 있는 것까지 위의 단판연화문 수막새 A와 같다. 이 수막새의 주연부는 너비 1.1cm이고, 문양면으로부터 높이는 1.3cm이다.

3) 단판연화문 수막새 C (圖版 3 - ①, ②, ③)

이 수막새 小片은 경주 남산 장창곡 天恩寺址 남쪽 논에서 채집된 것이다. 색조는 아주 밝은 적갈색을 띠고 있다. 이 수막새도 小片이어서 8엽 중 2엽도 채 남아있지 않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부분만 보더라도 위 수막새 A, B와 동일한 문양임을 알 수 있고, 문양면 뒤에는 길이 약 5cm에 이르는 수키와부도 남아있다. 이 수막새의 주연부 너비는 1.8cm인데, 그 중 외부는 문양면과 접합되었던 수키와 부분이고, 안쪽은 따로 보토하여 접합한 것이다. 그리고 이점에서는 위 수막새 A와 같다. 이 수막새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주연의 높이가 무려 2.7cm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처럼 古新羅의 수막새로서 높이 2.5cm가 넘는 주연을 가진 것은 매우 드문 편이다.

2. 당초문 암막새(3점)

1) 당초문 암막새 A (圖版 4 - ①, ②, ③)

이 암막새 파편은 鮑石亭 西北便 南寺址에서 채집된 것이다. 회색경질의 당초문 암막새편으로 문양면의 오른쪽 부분이다. 주연에는 2組의 突線이 있고, 문양면에는 당초문이 시문되어있

4) 三國史記 卷第四 新羅本紀 眞興王 5年條

5) 박흥국, 1980. 「慶州地方에서 出土된 文字銘瓦」 『전국대학생 학술연구발표 논문집(인문분야)』 제5집 (고려대학교 학도호국단) pp.106~107

다. 문양면 뒤에 부착된 암키와는 내외면을 모두 물손질한 것이고, 아래쪽에도 문양면(또는 아래턱)이 부착되어 있던 흔적이 뚜렷하다. 태토 중에는 지름이 1.3cm에 이르는 굵은 石英粒이 포함되어 있다. 남은길이 14.6cm, 문양면 너비 3.2cm 이다.

2) 당초문 암막새 B (圖版 5. - ①, ②, ③ ; 개인소장)

이 당초문 암막새는 위의 당초문 암막새 A가 채집된 곳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鮑石亭 西北便 北寺址에서 채집되었다. 기와 전체의 색조는 회백색이며, 일단 두께 약 2cm 정도의 막새문양을 제작한 뒤 상부 안쪽에 ‘ㄴ’자 모양의 홈을 만들어 거기에 암키와를 부착한 것이다. 상부의 접합부나 下部의 補土外面은 모두 잘 물손질되어 있다. 아래턱의 두께는 2.6cm, 문양면 너비는 3.5cm이다.

3) 당초문 암막새 C (圖版 6. - ①, ②, ③ ; 개인소장)

남산 장창곡 와요지에서 채집된 破片인데 오른쪽으로 약 ½에 해당하는 것이다. 색조는 회청색이고, 태토 중에는 石英粒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이 암막새가 위의 당초문 암막새 A, B와 현저히 다른 점은 아래턱의 두께가 1.6~1.8cm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문양면 너비는 3.3cm이다.

3. 二重唐草紋 암막새(2점)

1) 二重唐草紋 암막새 A (圖版 7. - ①, ②, ③)

이 암막새 편은 경주 남산 장창곡 와요지에서 채집되었다. 이 기와는 문양면의 상하에 같은 당초무늬를 二段으로 시문해 놓은 특징있는 것으로 昌林寺址, 天恩寺址, 南澗寺址⁶⁾ 등에서 출토된 바 있다. 회청색 태토 속에는 石英粒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문양면 너비는 5.3cm, 上下의 突出周緣 너비는 0.9cm 이다.

2) 二重唐草紋 암막새 B (圖版 8. - ①, ②, ③)

이 암막새 편도 A와 같이 남산 장창곡 와요지에서 채집되었다. 색조는 밝은 회갈색이며, 문양면의 아래쪽 ⅓가 떨어져 나가 접합부가 드러나 있다. 이 부분을 관찰하면 瓦范에서 제작되

6) 국립경주박물관, 2000, 『신라와전』 p.155 圖版番號498, p.163 圖版番號533, p.139 圖版番號451 참조

있던 문양면의 두께는 1cm 정도에 불과하다. 문양면에 시문된 당초문은 위 A와 같다. 그러나 이 암막새의 문양면에는 上下에 突出周緣이 없고, 1組의 突線으로 구획된 外緣에 珠紋이 施紋되어 있다는 점이다. 남아있는 문양면 너비는 2.3cm이다.

Ⅲ. 考 察

우선 단판연화문 수막새 3점은 문양면과 수키와부의 접합방법에서는 큰 차이점을 지적하기 어렵다. 그러나 3점의 주연부 높낮이는 거의 다른 기와로 보일만큼 격차가 있다. 한편 이 중 단판연화문 수막새 A의 제작시기는 6세기 후반경으로 추정⁷⁾되고 있다. 또한 수막새 B도 경주공업고등학교 부지내 출토품 중에는 가장 古式에 속하며, 수막새 C는 A와 문양이 같으므로 A, B, C 모두 같은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당초문 암막새 A, B, C에 새겨진 문양은 모두 같고, 특히 문양면의 폭이 3.2~3.5cm 정도로 좁다. 하지만 문양면 아래턱의 유무, 두께에서는 각기 다르다. 문양면의 너비와 상하주연이 없는 점에서 이들 암막새 A, B, C는 望星里 瓦窯址와 雁鴨池 등에서 많이 출토된 턱없는 당초문 암막새(無顎式 唐草紋平瓦當: 圖版 9)와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그 제작시기를 추정하는데 있어 문양면에 비중을 두게 되면 望星里와 雁鴨池의 턱없는 당초문 암막새보다 조금 늦거나 비슷한 7세기 말엽⁸⁾으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이중당초문 암막새 A, B도 시문된 문양과 접합기법은 같으나, 上下 突出周緣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이들 암막새 A, B의 제작시기에 대해서는 이 막새들이 제작되었던 장창곡 와요지의 조업기간 推定値에 따라 그 下限을 9세기초⁹⁾에 두고자 한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필자가 제시한 자료 또는 말하고자하는 의도는 매우 단순하고도 명백하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앞서 제시한 3종류의 막새들은 각 종류별로 같은 시기에 제작되었다는 것이다. 돌이켜 생각하면 古式수막새에 있어서 주연의 높낮이, 암막새의 접합방법이나 上下周緣의 有無與否는 이제까지 막새의 제작시기를 추정할 때 매우 영향력있는 척도

7) 박홍국 외, 2001. 『앞 보고서』 p.41

8) 이 종류의 암막새는 연결된 암키와부에 남은 「儀鳳四年皆土」 銘文에 의거하여 A.D.679경에 많이 제작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박홍국, 1988. 「앞 논문」 pp.75~79 참조.

9) 註7과 같음.

로 활용되어 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¹⁰⁾. 그렇지만 앞서 제시된 자료들은 문양면이나 접합기법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는 막새들도 시문된 문양이 같으면 제작동시성을 인정해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쯤에서 同紋異形막새가 제작동시성을 共有한다는 필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어떤 형식에 속하는 막새기와의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 재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필자처럼 간단히 同紋異形 막새에 대하여 제작동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주장이 대두될 수 있다. 그렇다면 세부적으로는 이미 제작되어 있는 막새의 문양을 찍어 그 것을 瓦范으로 만드는 경우와 새로 前代의 문양을 모방하여 瓦范을 제작하는 두가지 방법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前者의 경우에는 성형된 기와를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水分蒸發 후 粘土의 收縮 때문에 原范에서 찍어낸 것보다 현저히 작아지는 현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大小差異는 누구나 판별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後者の 경우 즉 「復古風」의 瓦范은 거의 대부분 原紋樣과는 여러 면에서 차이점을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그야말로 완벽한 모조품을 만들겠다고 作心하여 제작한 것이 아니라면 크기·문양의 높낮이·문양선의 굵기 등에서 어딘가 다른 양상을 보여주게 마련이다. 결국 제작시기가 크게 차이 나는 막새들에 세부적인 면까지 동일한 문양이 시문될 확률은 매우 낮다고 할 수밖에 없다. 다시 이들 3종류의 막새들이 각각 同時期에 제작된 것¹¹⁾이라는 필자의 주장이 적절하다는 전제 위에 말을 보탠다면, 古瓦도 형식분류를 통한 연구대상이지만 「지나치게 세분된 형식분류결과를 편년에는 결부시키지 말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古瓦 中, 특히 막새에 대한 고찰에서는 무엇보다도 瓦范에 의한 施紋部分,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施紋(紋樣)狀態, 周緣의 높낮이, 接合方法에서는 同時期·同紋樣의 막새에서도 여러 면에서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을 기꺼이 인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접합방법의 차이에 대해서는 기술숙련도와 습득과정이 서로 다른 여러 명의 瓦工이 동시에 제작하였다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우리가 古瓦도 결국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일 때 古瓦를 보는 눈도 밝아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본고에서 구사한 접근방법과는

10) 필자가 본고를 작성하는 주된 목적은 同紋異形 막새의 實例를 널리 알리고 이제부터라도 이들 자료에서 볼 수 있는 차이점을 편년자료로는 활용하지 말자는 것을 권유하는데 있기 때문에 기와의 연구에 반영되어 있는 편년관에 대해서는 개별각주를 통하여 논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11) 필자는 얼마전에도 新羅 古式수막새의 있는 문양면에 있는 여러 가지 手作業施紋痕을 찾아내어 이런 요소들은 편년작업에 있어 고려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박홍국, 2001. 「新羅 古式수막새 文樣面의 二次手作業施紋痕」, 박홍국의, 2001. 『앞 보고서』의 附論 pp. 103-128.

다르지만 여러면에서 위와 같은 필자의 주장을 후원하여 줄 수 있는 연구성과가 발표되었다. 즉 圖版10의 암막새 3組 6點을 포함한 5組 10點의 암·수막새들이 동일한 아래턱 문양에 근거하여 각각 동시기에 제작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¹²⁾이다. 여기에서 필자는 이상의 사실들에 대하여 재삼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위에서 인용한 최근의 연구성과와 이번에 전개한 필자의 주장이 있기 전에도 본고에서 거론한 자료들이 각각 제작동시성을 갖고 있는 유물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自問自答하여 보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서두에서부터 강조한 것처럼 편년대상으로서의 古瓦는 토기 등 다른 유물에 비하여 그다지 매력있는 자료의 범주에 속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古瓦研究의 지름길은 어디까지나 창건연대가 확실한 건물지의 창건 막새가 1차적인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古瓦研究는 제작시기가 확실한 創建瓦(막새포함) 자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銘文瓦, 共伴遺物(특히 토기 등)에 의지하여 상대편년의 시간적·공간적 폭을 넓혀 나가는 것 밖에 없어 보인다.

IV. 맺 음 말

이제까지 간략히 논의한 내용을 다시 요약·기술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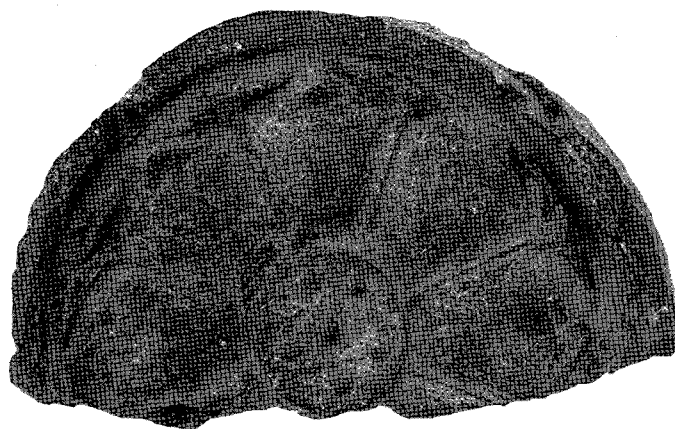
우선 필자가 II장에서 제시한 3種 8點의 암·수막새들은 周緣의 높낮이, 암막새 아래턱의 형태, 암막새 上下周緣의 有無에 관계없이 각각 同時期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암·수막새의 형식분류, 제작시기 추정작업에 있어 같은 문양이 시문되어 있는 것이라면 앞서 말한 사소한 차이점은 그다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위의 고찰결과를 古瓦의 편년에 있어 접합방법 등 제작기법에 의거하여 편년작업을 시도하는 것은 그다지 정확하거나 효과적인 방법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제작기법이 처음 도입되거나 발생하였던 시기에 이 기법에 의하여 제작되었던 유물(古瓦)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古瓦가 가진 원천적인 취약점---누구나 느끼고 있는 점이겠지만---, 즉 편년이 쉽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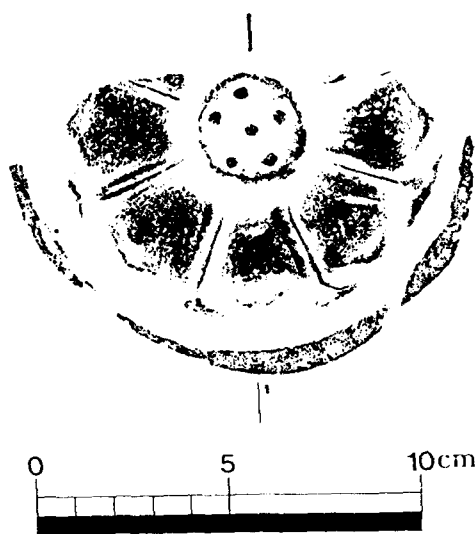
12) 高正龍, 2000, 「新羅古瓦についての覺書」『京都市埋藏文化財研究所 研究紀要』第6號 (京都: 財團法人京都市文化財研究所) pp. 52 - 57

않다는 점을 보완하는데에는 역시 별다른 지름길이 존재하지 않으며, ① 발굴조사되는 유적의 경우에는 치밀한 層位別 考察, ② 共伴遺物(土器 등)에 의지한 상대편년, ③ 창건 연대가 확실한 건물지에서의 創建瓦資料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되도록 많이 확보하는 수밖에 없음을 재 강조하고자 한다. (2001년 6월 2일 脫稿)



①

* 以下 圖版中の 사진은 스케일의 크기와 관계없음.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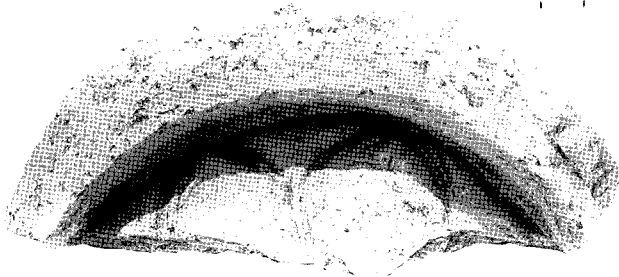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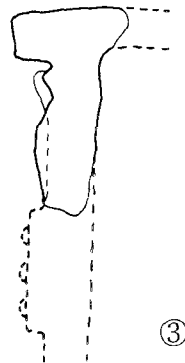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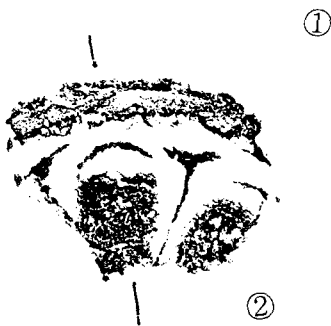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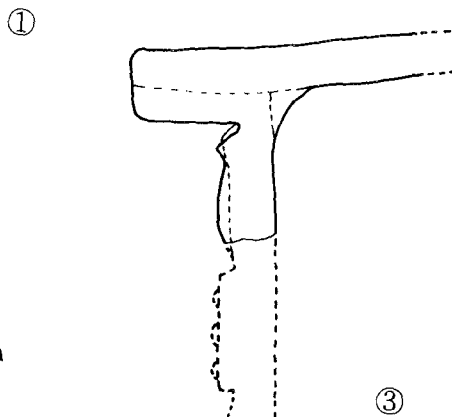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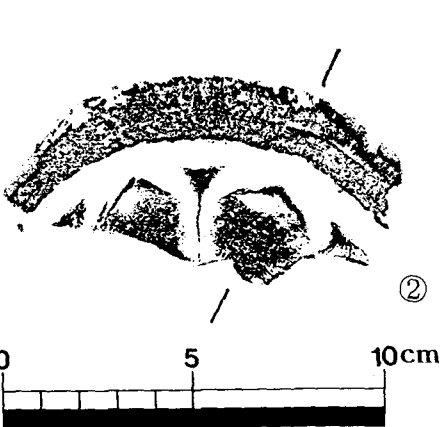
圖版 1. 단판연화문 수막새 A : 경주 남산 장창곡와요지 (①사진, ② 탁본, ③ 단면도)



圖版 2. 단판연화문 수막새 B : 경주공업고등학교 부지 (① 사진, ② 탁본, ③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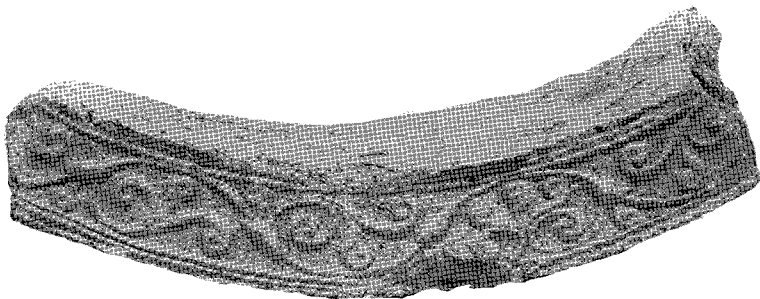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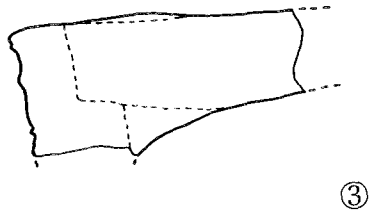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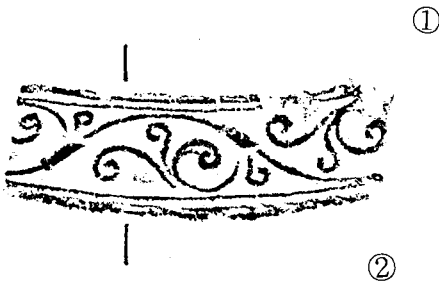


圖版 3. 단판연화문 수막새 C : 경주 남산 장창곡 천은사지 남쪽 논 (① 사진, ② 탁본, ③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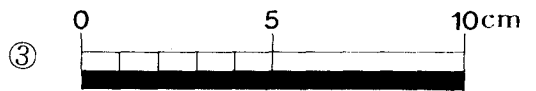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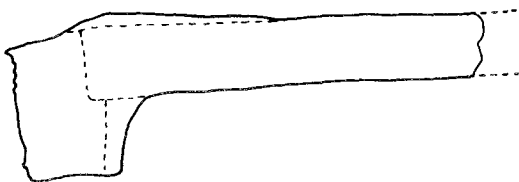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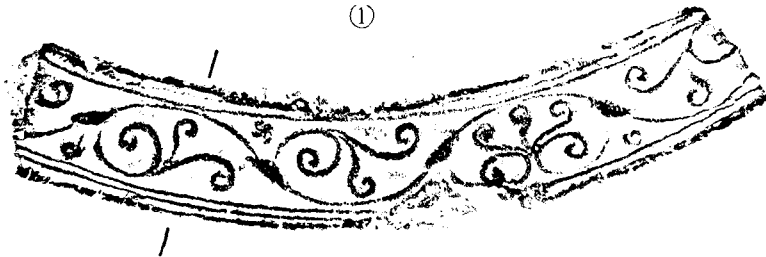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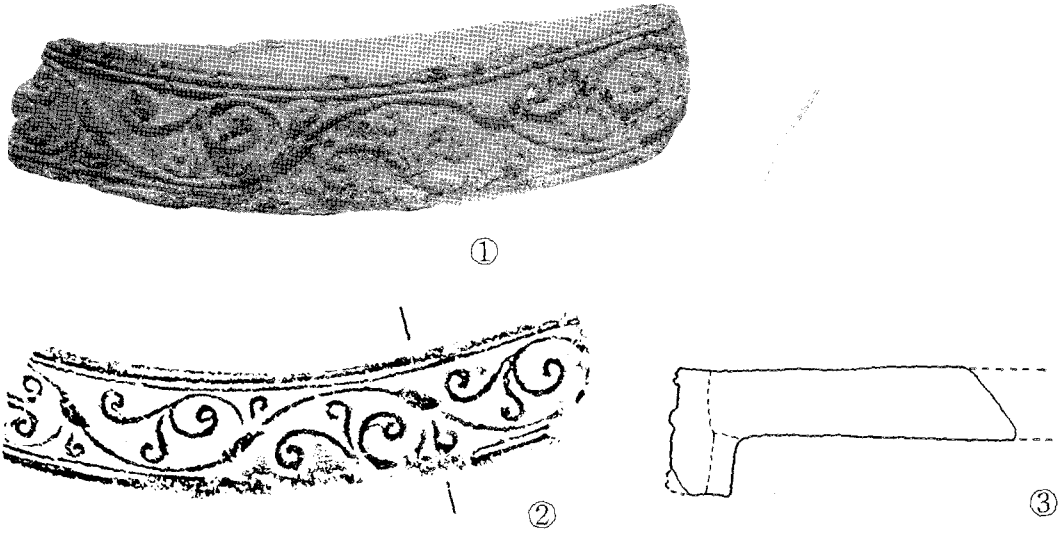


圖版 4. 당초문 암막새 A : 포석정 서북편 남사지
(① 사진, ② 탁본, ③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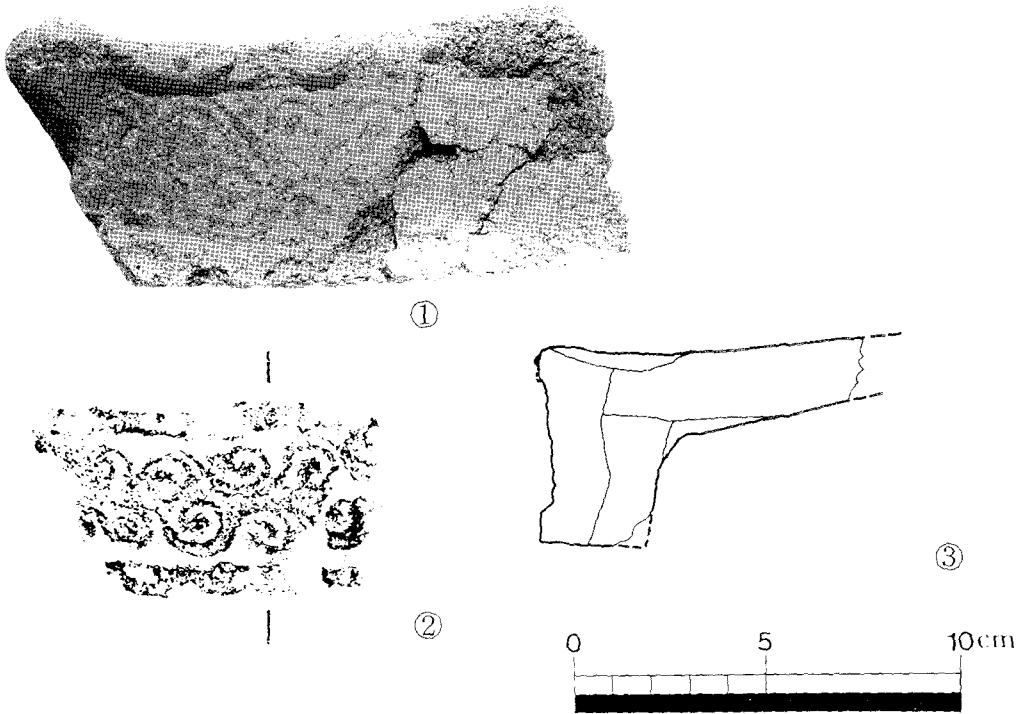


圖版 5. 당초문 암막새 B : 포석정 서북편 북사지
(① 사진, ② 탁본, ③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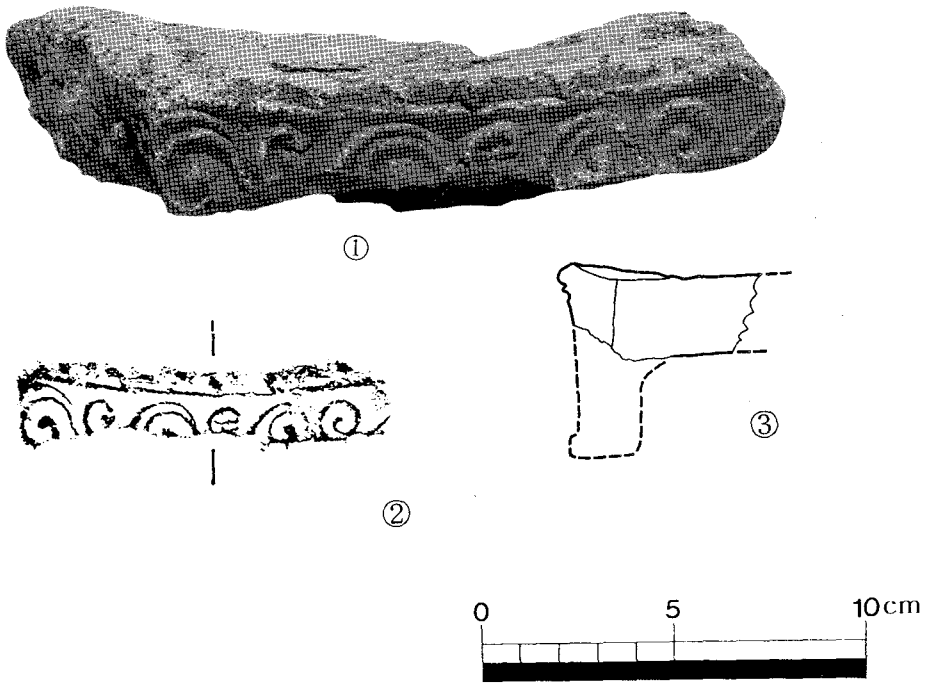




圖版 6. 당초문 암막새 C : 경주 남산 장창곡와요지 (① 사진, ② 탁본, ③ 단면도)



圖版 7. 二重唐草紋 암막새 A : 경주 남산 장창곡 와요지 (① 사진, ② 탁본, ③ 단면도)



圖版 8. 二重唐草紋 암막새 B : 경주 남산 장창곡 와요지 (① 사진, ② 탁본, ③ 단면도)



圖版 9. 望星里瓦窯址 出土 唐草紋 암막새편
(국립경주박물관『新羅瓦塼』p.191 圖版番號 613을 轉載)



仁谷寺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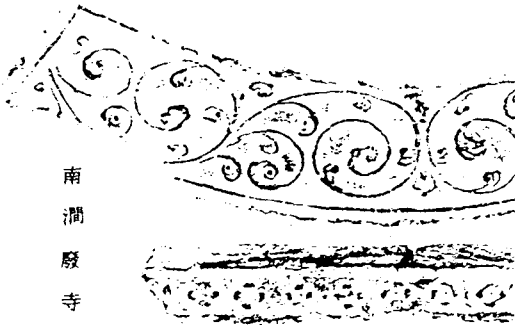
千軍寺廢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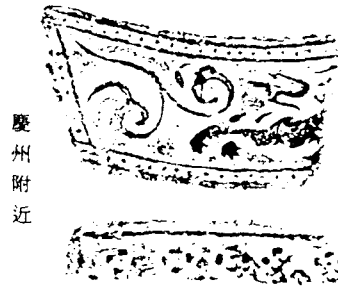
普門寺、月城址



排盤里廢寺



南澗廢寺



慶州附近

圖版 10. 瑞鳥紋.麒麟紋.草紋.唐草紋.龍紋. 암막새 紋樣面 및 아래턱面 拓本
(高正龍, 2000, 「앞 논문」p.53 圖11의 위쪽 일부를 轉載)

A Study of Shilla(新羅) Roof-end Tile Which Has The Same Design But Different Form

Park, Hong-Kook

The roof-end tile among Korean old roof tiles has been recognized as a short cut to the study of roof tiles. Because the roof-end tile was stamped out with the design in fashion or preferred by the people at that time. So many researchers and scholars have studied and examined it.

This study examines 8 articles of 3 kinds among Shilla roof-end tiles which have the same design but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production methods such as the method with an upper or lower edge, the connecting method or the method in breadth. We come to the conclusion as follows:

1. Each kinds of roof-end tiles which we examine are produced at the same time instead of a big difference of the detail form.
2. The time scope in which the production method of roof tile itself is standardized as a production chronicle can be applied to only the remains of which its production method had been introduced first.
3. Accordingly, we emphasize that fixing the chronicle of old roof tiles needs the various approaches including excavated strata, the comparison of accompanied remains(especially pottery) and so on.